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김낙주 의원)

의안 번호	2341
----------	------

발의년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낙주, 방미숙, 강성삼,
이영준, 박진희, 김은영,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임.
- 하남시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 이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자함

3. 송부대상 : 외교부

4. 붙 임 : 결의문 전문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문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 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다. 잔혹한 폭력 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탈레반의 1996~2001년 통치 시절, 소녀들은 교육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과거로의 회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 내각을 구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에 맞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탈레반은 이 여성 시위대, 극기 시위대 등에도 발포하여 무고한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 문명의 수치임이 자명하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1. 11. 9.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